

尹 “아세안+3, 공동체 비전 지향… 협력 새 전기 마련해야”

>> 1면 ‘尹 “韓美日, 아세안+3”서 계속

“韓中日 3국, 협력 활성화하고 이른 시일 내 정상회의의 비록해 협력 메커니즘 위한 소통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공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성과도 공유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며 “지난 1년간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8개 중점 추진 과제를 식별하고,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KASI는 ‘글로벌 중추국 도약’을 목표로 인태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동남아 지역에 특화된 인태 전략의 세부 전략으로, 아세안과의 실질적·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리창 중국 총리(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뉴시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2회(2014년, 2019년) 개최한 인연을 부각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해양국과 많은 이웃 나라들과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

께 모색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부산이 다시 한번 인태 지역과 전 세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 ‘에도 참석해 3

국의 협력이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3은 공동체의 비전을 지향해왔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아세안+3은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1997년 동아시아 외환 위기가 덮쳤을 때 아세안과 한국, 일본, 중국 3국 정상들은 함께 연대하고 공조해서 위기를 극복해가자는 데 뜻을 모

았다”며 “그것이 아세안+3의 출범 배경이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지정학적 경쟁, 기후 위기 등이 맞물려 만들어내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헤쳐나가면서 성장의 중심을 지향하는 아세안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아세안+3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한국, 일본, 중국 3국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3국 대표하는 조정으로 필요한 역할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한 3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재개하기 위해 일본,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가고자 한다”며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듯이 한국, 일본, 중국 3국 협력의 활성화는 아세안+3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통계로 본 인구구조 2題

인구 줄어드는데 고령층 늘어... 국민 8명 중 1명 70세 이상

행안부, 70세 이상 인구 625만명 20대 626만명, 곧 70대 이상이 추월

10대 467만명, 0~9세 339만명 여성은 7명 중 1명이 69살 넘어 기대수명 88.7세로 日 이어 2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만 70대 이상 인구는 10년 전보다 20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국민 8명 중 1명이 7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령층을 가르는데 이인 만 65세를 이미 훌쩍 넘어섰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70세 이상 인구는 625만 명으로 집계됐다. 70대가 391만명, 80대가 203만명, 90대가 29만2000명, 100세 이상이 8929명이다. 전체 인구(5137만명)의 12.2%를 차지했다.



지난 1965년 12월 서울 중심가의 모습이다. 국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출생에 따라 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나던 시기다. /국가기록원

70세 이상은 20대(626만명)를 몇 달 내에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10대(467만명)와 0~9세(339만명)보다 훨씬 많다.

지난 2013년 70, 80, 90대, 100살 이상 인구는 42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2%에 그쳤다. 10년간 203만명 늘어난 것이다.

기대수명이 남자보다 긴 여자의 경우, 70대 이상은 지난달 기준 364만 명으로 전체 여성인구(2578만명)의 14.1%에 달했다. 한국여성 7명 중 1명이 69살을 넘었다.

OECD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여성의 기대여명은 2021년 기준 23.7년이다. 고령층 진입 이후에도 평균 88.7세까지 살 것으로 예측된다는 뜻이다.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일본(24.7년·89.7세)에 이어 이 부문 2위에 올랐다.

65세 이상 여성 기대여명에서 미국(19.7년·84.7세)이 29위, 네덜란드(20.8년·85.8세)가 26위, 독일(21.1년·86.1세)이 22위 등이었다.

우리나라는 70대에 더해 80대 이상의 증가속도 또한 가파르다.

행안부에 따르면 80~89세 국민 수

는 올해 3월 역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다. 80대는 지난 2013년 8월 100만 명 선을 넘어섰고, 10년 만에 무려 100% 증가한 것이다.

90대 또한 2013년 8월(14만6000명) 대비 100%(14만6000명) 늘었다.

100세 이상 국민은 국내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19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517명), 전남(625명), 경북(594명) 순이었다.

유엔 등이 규정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은 올해 8월 기준 9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6%로, 10년 전(616만명·12.1%)보다 6.5%포인트(p) 증가했다. 15년 전 65세 이상 비율은 10.1%(501만명)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韓 체류외국인 10명 중 8명 “만족”... 20% “차별 경험”

통계청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매우만족 41%, 약간만족 40% 어려운 사항 43% ‘언어문제’

국내체류 외국인의 80%가량이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머문 외국인 5명 가운데 1명은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 있다고 답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6일 발표한 ‘체류 외국인의 한국 생활’ 분석결과

에 따르면 매우 만족이 40.8%, 약간 만족이 39.6%로 전체의 80.4%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이 89.5%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79.2%), 직업에 대한 만족(68.6%)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소득에 대한 만족은 53.3%로 비교적 낮았다.

지난 1년간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

중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 비율은 19.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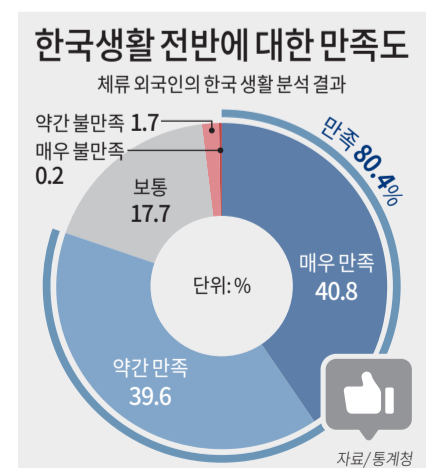
이들 중 43%는 상점·음식점·은행에서 차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일터(41.7%), 거리·동네(35.5%)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비율도 컸다. 다만 학교·대학(11.1%),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18.5%)와 공공기관(23.8%) 등에서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한국 생활에서 어려운 사항(복수응

답)으로는 언어문제(43.4%)와 외로움(28.8%)을 많이 꼽았다. 이어 생활방식·음식 등 문화차이(27.8%), 경제적 어려움(20.0%), 외국인에 대한 오해 또는 무시(16.1%) 등의 순이다.

외국인들은 여가생활(복수응답)로 주로 TV 시청(57.3%)을 하거나 수면·샤워 등의 휴식(49.1%)을 즐겼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는 175만 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2~3년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